

정년 1년 늦추면 5만명 은퇴 유예…고용시장 파장

당정·노동계 ‘65세 정년’ 입법 추진 급물살

“뚜렷한 방향성 제시…청년 대책 마련해야”

정년이 1년 연장되면 정규직 고령자 약 5만명의 은퇴가 유예될 것으로 추산된다. 그 여파로 ‘질 좋은 일자리’ 공급이 줄어들어 청년들의 취업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9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 마이크로데이터를 통해 한국의 상용근로자의 연령별 분포를 세부 분석한 결과,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고용자 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이었다.

상용근로자는 1년 이상 계속 일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업자다. 임금근로자 가운데 가장 안정적인 형태로, 통상 정규직으로 불린다.

1964년생 상용근로자는 59세 때인 2023년엔 29만1000명이었는데 60세인

작년에는 23만7000명으로 5만5000명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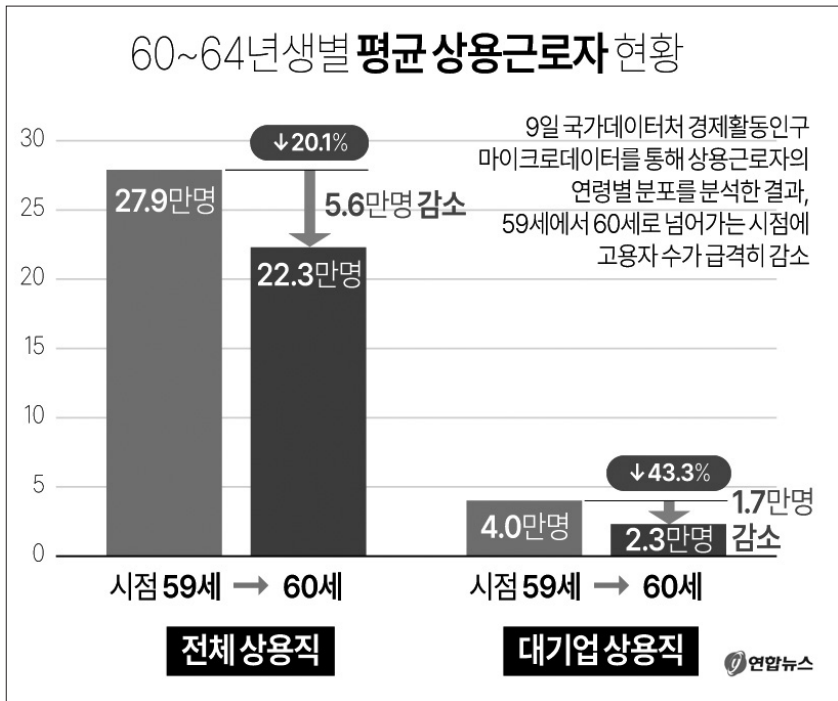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에 상용근로자는 평균 5만6000명 줄었고 감소율은 20.1%였다.

이는 상용근로자가 법정 정년인 60세에 대거 정년퇴직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기업인 대규모 사업장(종업원 300인 이상) 상용직에서는 법정 정년퇴직의 영향이 더욱 커졌다.

대기업 상용직인 1964년생은 2023년(59세) 4만5000명이었는데 작년(60세)엔 2만5000명으로 44.5% 급감하며 거의 반토막이 됐다.

1960~1964년생이 59세에서 60세로 넘어가는 시점의 평균 감소는 1만7000명



으로, 43.3% 줄었다.

정년을 60세에서 높이면 고령 상용근로자는 자연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정년을 61세로 1세 연장하면 59~60

세 구간에서 나타난 감소가 60~61세 구간으로 1년 유예되는 경우가 많을 것으

로 전망된다.

기업이 최대 5만6000명에 달하는 고령 상용근로자를 1년 더 고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는 고령 상용직 인건비 부담 확대와 신규 채용 여력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이 지난 4월 발표한 ‘초고령 사회와 고령층 계속근로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만 60세 정년 연장에 따라 고령 근로자 1명이 늘어날 때 청년 근로자는 1명(0.4~1.5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를 정년 1년 연장 시나리오에 단순 대입하면 연 약 5만개의 안정된 청년 일자리 공급이 사라질 것으로 추산된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2021년(11만5000명)·2022년(11만9000명) 증가했다가 이후엔 2023년 9만8000명 감소한 데 이어 2024년엔 14만4000명이 감소했다.

20대 전체 일자리 중 새 일자리 비중도

1분기 기준으로 2022년부터 올해까지 51.4%→50.6%→48.0%→46.9%로 감소하는 등 일자리 공급이 줄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정부는 정년 연장을 국정 과제로 선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노동계의 주도로 만 65세 연장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초고령사회에서 나타날 수 있는 성장 잠재력 하락과 노인층 빈곤 등을 해소하기 위해 고령층이 더 오래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다.

다만 청년 일자리에 적지 않은 충격이 될 수 있으므로 정교한 청년 고용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변화 방향성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점진적으로 변화가 전개돼야 한다”며 “특히 청년층을 위한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전남 고품질 햅쌀, 펫푸드 시장 공급 전남산 햅쌀이 반려동물 식품 원료로 본격 공급된다. 농협 전남본부는 최근 ㈜동원F&B, 펫메이트㈜와 함께 강진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농심천심운동 및 전남쌀 공급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존 반려동물용 식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목은쌀 대신 ‘전남산 고품질 햅쌀’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고품질 식품의 개발 및 생산에 협력하고 유통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이광일 농협 전남본부장, 장인정 ㈜동원F&B 상무, 양우석 펫메이트㈜ 대표, 진성국 강진농협 조합장 등이 참석했다.

코스피 7조 팔아치운 외국인…환율 1400원대 ‘뉴노멀’

1460원 뚫리며 달러 대비 원화 절하율 1위

‘서학개미 열풍’에 악세·대미 투자 우려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주에만 코스피를 7조원 넘게 팔아치우면서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1,460원대로 뛰었다.

달러 대비 원화 가치의 한 주 사이 2%나 하락해, 주요국 통화 중 절하율 1위를 기록했다. 시장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 확대와 대미 투자 수요 등 구조적인 달러수급 불균형으로 1,400원대 환율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환율 한 주 30원 급등

9일 서울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7일 원·달러 환율의 야간 거래 종가는 전주보다 28.5원 뚫 1,461.5원을 기록했다.

지난 4월 9일(1,472.0원)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다. 당시는 탄핵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다소 수그러들었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효하고 미·중 갈등이 고조

됐던 시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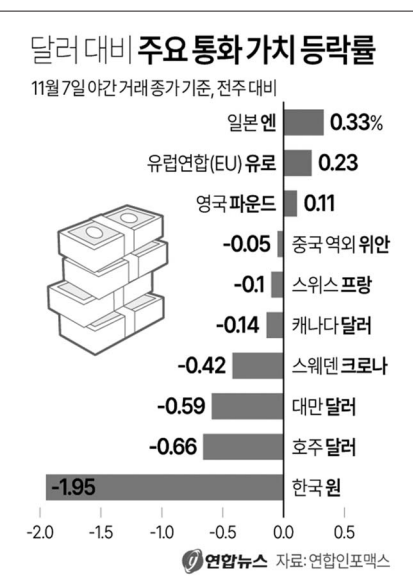
원화는 지난주 주요국 통화 중에서도 가장 약세였다. 연한인포맥스에 따르면 달러 대비 원화 가치는 지난 7일 야간 거래 종가를 기준으로 전주 대비 1.95% 하락했다.

같은 기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하면서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인 달러인덱스 약 0.15% 절상된 데 비해 원화 가치 하락 폭이 컸다.

달러인덱스를 구성하는 통화 중 유럽연합(EU) 유로(+0.23%)와 일본 엔(+0.33%), 영국 파운드(+0.11%)는 달러 대비 강세였다. 호주 달러(-0.66%), 대만 달러(-0.59%), 중국 역의 위안(-0.05%) 등

다른 아시아 통화도 원화보다는 강했다.

지난주 원화 가치를 끌어내린 주요인은



외국인 투자자의 7조2638억원 어치 주식 순매도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5거래일 연속 유가증권시장에서 주식을 처분했다.

지난 달 외국인 순매수 규모(5조3447억원)를 뛰어넘었고 9월 한 달 외국인 순

매수(7조4465억원)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코스피 지수는 이달 초 4,200선을 돌파하는 등 사상 최고치 랠리를 이어갔으나, 인공지능(AI) 고평가 우려로 투자 심리가 약화하며 지난주 급락했다.

△서학개미 열풍 등 내국인의 해외투자 증가세도 원화에 구조적인 악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올해 1~9월 거주자 해외증권투자액은 998억5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외국인 국내증권 투자액(296억5000만달러)의 약 3.4배에 달했다.

내국인 해외투자가 늘어난 탓에 경상수지 흑자에도 환율이 내려가지 않고 있다.

실제로 올해 9월까지 경상수지 누적 흑자는 827억7000만달러로, 같은 기간 직 접투자와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 규모(809억9000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이다. 여기에 정부의 대미 현금투자(연간 200억달러 한도)도 환율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연합뉴스

국회 농해수위 “농협·수협 세제지원 현행 유지”

결의안 채택 “비과세 예탁금·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 연장율”

농협중앙회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최근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적용 중인 비과세 예탁금 및 조합 법인세 저율과세 특례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일몰기한을 연장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결의안에는 농협·수협의 농어민 지원사업 활성화와 지역금융 안정성을 위해 정부가 관련 조세특례의 현행 유지 및 일몰 연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

이 담겼다. 아울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는 요청도 포함됐다.

농해수위는 결의안에서 “정부 세제개편안대로 특례가 축소될 경우 상호금융 자금 이탈이 발생하고, 농협·수협 등 조합 법인의 수익 감소로 이어져 결과적으로 농어촌 지원 축소와 지역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협·수협의 비과세 예탁금과 법

인세 특례 유지 요구는 농어가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농가소득이 도시근로자 소득의 58% 수준에 머무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행 세제 지원이 농어촌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기반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해수위는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결집해 농업 부문 조세특례 연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승홍 기자 photo23@gwangnam.co.kr

현대차그룹, 영국 AI 스타트업과 차세대 소재 개발

현대차그룹이 영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과 손잡고 차세대 소재 개발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6일(현지시간) 영국 케임브리지의 커스프AI 본사에서 박철 현대차그룹 신사업전략실장, 커스프AI CEO 에드워드 CEO 등 양사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소재 AI 협력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커스프AI는 첨단 생성형 AI, 딥러닝, 분자 시뮬레이션 등을 활용해 소재 개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목적에 최적화된 재료를 빠르게 찾는 것을 목표로 하는 스타트업이다.

양사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소재의 효율성, 내구성, 안정성 등을 높이고 다양한 신소재를 발굴함으로써 모빌리티 솔루션을 혁신할 계획이다.

현대차그룹은 최근 ‘과학을 위한 AI’라는 연구 패러다임에 발맞춰 AI를 활용해 연구개발 성과를 창출하고 미래 모빌리티



리더십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AI로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새로운 물질 구조나 단백질 서열을 설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소재 개발 기간과 비용을 줄이고 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현아 기자 aura@gwangnam.co.kr

휘발유 1700원대 ‘성금’…이번주 더 오른다

2주 연속 상승 ㄹ 당 광주 1670.2원·전남 1688.2원

광주·전남지역 주유소의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했다.

9일 한국석유공사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번째 주(2~6일) 광주와 전남지역의 주유소 평균 휘발유 판매가격은 ㄹ 당 1670.2원, 1688.2원으로 전주 대비 각각 17.1원, 16.1원 올랐다. 전주 대비 6.4원, 4.5원 오른 10월 다섯째 주(26~30일)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같은 기간 상승했다. 광주 경유 판매가격은 10월 넷째 주 1569.6원으로 2주 연속 올랐다.

광주·전남에서 휘발유와 경유를 가장 저렴하게 판매하는 곳은 광주 광산구 장록동(㈜평동제일주유소(휘발유 1599원·경유 1499원)와 CJ대한통운㈜ 장성터미널주유소(휘발유 1610원·경유 1490원)로 확인됐다.

전국 주유소 평균 기름값도 2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휘발유 판매가격은 10월 넷째주 1661.0원을 기록한 뒤 1666.4원(10월 다섯째주), 1685.5원(11월 첫째주)으로 올랐다. 경유 판매가격은 10월 넷째주 1534.7원을 기록한 뒤 1541.7원(10월 다섯째주), 1568.1원(11월 첫째주)으로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내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조사됐다.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10월 말 국제 석유 제품과 환율이 모두 오른 데다가 유류세 인하율 축소분이 계속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다음 주 국내 주유소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